

농촌진흥청, 집에서 즐기는 오리고기 조리법 선배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5월 2일 ‘오리 먹는 날(오리데이)’을 맞아 오리의 영양 성분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소개했다.

오리고기는 올레산, 리놀렌산 등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으며, 체내 대사 활동에 필수적인 라이신 등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도 높다. 또, 비타민A의 함량이 높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두뇌 성장과 기억력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05년 0.97kg에서 2013년 3.15kg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집에서 소비하는 경우보다 외식 비율이 높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조리 방법을 이용하면 집에서 쉽게 오리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 힘 썩썩, 기를 보하는 ‘오리고기 영양술밥’



멥쌀은 씻어 불리고, 오리가 습살은 먹기 좋게 채썰어 밀간을 한 뒤 볶아낸다. 돌솥에 쌀을 안치고 국간장을 넣는다. 오리고기와 표고

버섯, 은행, 대추를 올린 뒤, 센 불에서 한소끔 끓이고 다시 약한 불에서 15분 끓이면 영양밥이 완성된다.

◆ 속을 꽉 채운 영양 덩어리 ‘단호박 오리치즈구이’



단호박은 통으로 준비해 씻은 뒤 자르기 쉽도록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간 돌린 뒤 속을 파낸다.

팬을 달궈 훈제오리를 넣고 노릇하게 볶다가 양파, 피망, 굴소스, 후춧가루를 넣고 고루 섞어가며 볶는다. 속을 파낸 단호박에 볶은 재료를 넣고 모차렐라 치즈를 듬뿍 올린 뒤 170℃로 예열한 오븐에 담아 약 20분간 굽는다.

◆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오리고기 모듬 버섯전골’



오리고기는 얇게 썰어 준비한다. 냄비에 다시마를 넣어 끓인 뒤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한다.

다. 표고, 느타리, 팽이, 새송이버섯은 먹기 좋게 썰거나 결대로 뜯는다. 양파와 알배기배추는 굵게 채 썰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썬다. 전골냄비에 오리고기를 비롯해 준비한 재료를 돌려 담은 뒤 다시마 국물을 부어 끓여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문흥길 가금과장은 “대부분 오리고기를 구이나 백숙, 훈제 등 단순한 조리법으로 소비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조리법 개발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강 미모 김은비 셰프와 함께하는 '오리'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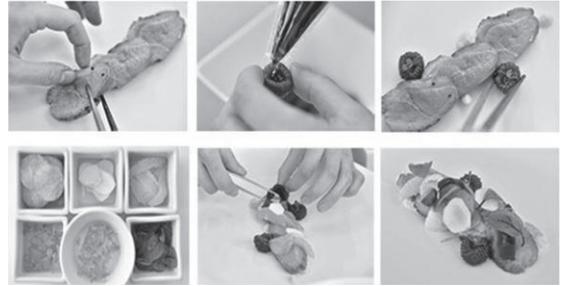
그랜드 하얏트 인천 레스토랑8의 김은비 셰프, 업계 '얼짱'으로 유명한 그를 인천으로 찾아가 만났다. 김 셰프는 오리 가슴살에 상큼한 오렌지 소스를 곁들인 에피타이저 요리를 소개했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 레스토랑8 김은비 셰프

약한 불로 천천히 구워 겉은 바삭하게, 속은 부드럽게 익은 오리 가슴살에 김 셰프만의 화려함 색깔과 색다른 맛을 더하더니 근사한 한 접시를 만들어냈다. 새콤한 라즈베리는 메이플시럽을 채워 넣어 신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가니쉬로 재탄생했다.

김 셰프는 “오리 가슴살을 브레이징(건습 조리) 해서 올리는 것은 기본적인 조리법이지만 가니쉬와 소스에 변형만 주면 더욱 색다른 맛을 낼 수 있다”며 “브레이징을 할 때 오렌지 주스와 오렌지 제스트를 계속해서 끼얹어주면 오리 가슴살에 충분히 오렌지의 상큼한 맛이 배어든다”고 설명했다.



〈재료〉

오리 가슴살 1개, 비가라드 소스, 라즈베리 3개, 메이플 시럽, 밤 1개, 오렌지 속살 3개, 오렌지 껍질, 레드 소렐 3개, 붉은 순무 1개, 처빌 오일, 에스파놀 소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제스트, 시나몬 스틱 1개, 그랑 마니에르, 레몬 제스트, 타임 (허브의 일종) 1개

〈만드는 법〉

▶ 오리 요리

1. 약한 불로 팬에 오리 가슴살 스킨을 오랫동안 천천히 구워준다.
2. 스킨이 바삭하게 구워지면 스킨이 위로 오게 뒤집어 준다.
3. 덕주 30ml, 에스파놀 소스 10ml, 오렌지 주스 15ml, 오렌지 제스트, 시나몬 스틱, 로즈마리를 넣고 약한 불에 브레이징 해준다.

▶ 비가라드 소스 쥬리

4. 팬에 설탕 3티스푼, 메이플 시럽 5 티스푼, 버터 3g으로 가스트리크를 만든다.
5. 그랑 마니에르(오렌지 리큐르) 5 티스푼으로 플람베(조리 중인 요리를 센 불에서 적당한 도수의 주류를 첨가하여 단시간에 알코올을 날리는 조리) 해준다.
6. 끓는 물에 데친 오렌지 제스트와 레몬 제스트,

오.리.소.식.

- 오렌지 주스 20ml를 넣고 함께 졸여 준다.
- 7. 덕주 30ml와 에스파놀 소스 10ml를 넣어 준다.
- 8. 시나몬 스틱 1개를 넣고 졸여 준다.
- 9. 타임을 넣고 마무리 해준다.
- 10. 비가라드 소스 젤리를 차게 식혀 썰어 준다.

▶ 라즈베리

- 11. 라즈베리 비네거 3티스푼과 메이플 시럽 1티스푼을 넣고 졸여 준다.
- 12. 거품이 올라오면 버터를 넣고 캐러멜을 만들어 준다.
- 13. 라즈베리 안에 소스를 채우고 타임을 올려 준다.

▶ 헤럴드경제 손미정 기자, 사진 이상섭 기자 [2015. 04. 29]



파평산 오리불고기는 부대원들의 평가를 받게 됐다. 그 결과 샘킴은 54표 중 37표를 획득, 부대원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은 뒤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 스포츠조선닷컴 [2015. 05. 06]

‘진짜사나이2’ 샘킴, 훈제오리로 요리대전 승리

‘진짜사나이2’ 샘킴이 요리대결에서 승리했다. 5월 3일 방송된 MBC ‘일밤-진짜사나이2’에서는 25사단 파평산대대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며 신메뉴를 선보인 샘킴의 도전이 공개됐다.

지난 요리 ‘닭고기 채소수프’가 부대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체면을 구겼던 샘킴은 이날 오리를 이용해 최광일 일병과 요리대결을 펼쳤다.

샘킴은 선임들이 ‘파평산 오리불고기’를 만드는 동안 조미료, 조미소스를 쓰지 않고 직접 오리고기를 훈제하고 특제 소스를 만들어 ‘훈제오리 채소볶음’을 만들어 내놨다.

이후 샘킴표 훈제오리 채소볶음과 선임들이 만든

[특별기고] 현대인의 건강은 오리고기로 - 박인희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단장 -

5월이다. 저마다에게 5월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터이다. ‘계절의 여왕’이나 ‘가정의 달’로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필자에게는 5월 하면 ‘오리데이’가 먼저 떠오른다. 직업은 속일 수가 없나 보다.

오리는 질병 저항성이 뛰어나고, 환경적응도 타



축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예로부터 오리고기는 보신제로 애용돼 왔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오리가 사람의 기운을 보강해 주고 비위를 조화롭게 해주며 열독(熱毒)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온몸이 피곤할 때 좋고, 중풍이나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빈혈을 없애는 효능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오리고기의 맛과 영양은 물론 의학적 효능까지 재평가 돼 현대인들의 건강과 미용에 좋은 음식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육류로 각광받고 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에 영향이 없고, 필수아미노산인 트레오닌 성분은 과음, 폭식 등으로 손상당한 간의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며, 알칼리성 음식으로 몸이 산성화 되는 것을 막아주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표적인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인 오리고기에 단백질은 쌀밥의 6배, 비타민은 닭의 3.35배 들어 있다. 비타민 B1, B2, C의 함량이 높아 만성 피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체력저하를 막아주고 지구력을 높이고 집중력을 키워준다. 그리고 오리고기에 풍부한 칼슘, 인, 철, 칼륨 등 중요한 미네랄은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효과가 있다.

특히 본초강목에는 ‘오리고기는 해독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 병에 특효가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질병예방과 치료제로 이용됐다. 즉 오리고기는 신진대사를 조절

해서 몸에 쌓인 각종 독을 풀어주고 피의 순환을 돕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한다.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에게는 오리고기가 최고의 안성맞춤 음식이 아닐 수 없다.

농협은 이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5월 2일의 숫자가 오리(5-2)와 비슷한 발음이 나는 것에 착안해 매년 5월 2일을 ‘오리데이’로 지정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오리데이’는 열세 번째를 맞이한다.

이처럼 최상의 영양소 공급원이면서도 최고의 보양식품·건강식품인 오리고기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많이 먹고, 즐겨 소비업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에게 도움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농수축산신문 [2015. 05. 07]

오리협동조합 설립 ‘초읽기’ 충북지역 농가 주축 발기인대회

오리협동조합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충북지역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가)한국오리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사진)가 지난 5월 6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특히 주요가축 중 유일하게 협동조합이 없었던 오리업계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충북지역 오리농가가 주축으로 전남북 오리농가들도 일부 참석했으며 모란식품 김만섭 대표를 발기인 대표로 선출하고 5월 말까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6월 중순경 창립총회



를 통해 공식 출범키로 의결했다. 한편 (가)한 국오리협동

조합은 이날 오리농가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사료공동구매사업을 비롯해 오리고기유통사업, 새끼오리 입추 및 육용오리 출하사업, 동물병원 운영, 조합원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만섭 발기인 대표는 “오리산업이 주요 농축산물 중 상위 10대 품목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10 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오리 산업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계열화가 90% 이상 진행되고 있지만 오리는 협동조합 조차 없었다”라며 “오리협동조합을 통해 오리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5. 05. 08]

검역본부, 'AI 예방통제센터' 신설 방역체계 일원화 ... 2년간 한시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방역체계 일원화를 위해 'AI 예방통제센터'를 신설·운영에 들어갔다.

검역본부는 지난 2월 26일 AI 예방 및 조기종식을 목표로 AI 예방통제센터를 신설하고 최근 현판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렸다.

손한모 기술서기관이 센터장을 맡았으며 기획·방역·예찰·역학 분야에 각각 3명씩의 인력이



배치됐다.

당초 검역본부의 구상은 4개과 76명 규모였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대폭 축소됐으며, 센터는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평가 후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센터는 AI 예찰과 검사, 국내외 정보 수집, 농장 방역관리와 역학조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검역본부에서는 역학조사과와 질병관리과의 업무가 분리돼 있어 AI발생 시 역학관련 분석 이후에 현장 방역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업무의 단절이 일어났다.

센터의 설치에 그 두 가지 기능을 아울렀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추후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면 진단기능 및 농식품부 관련업무까지 이관해 온전한 방역체계 일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가금관련 단체, 현장 민간전문가 등과 협력하며 인력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라며 “AI 예방통제센터가 향후 AI 방역에 선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고 국민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방역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한국농업신문 이은용 기자 [2015. 05. 12]

오리농장 AI 사전예찰 강화

AI는 2014년 9월 4일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 9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154건이 발생, 217농장·492만수가 살처분 됐다.

지난 4월 29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양성이 검출된 이후, 5월 12일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 농장의 상시 예찰검사에서 검출되는 등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9월 24일 이후, 전국적으로 52개 방역대가 설정되어 이중 46개 방역대가 해제되고, 6개가 유지되고 있다. 4개 방역대는 5월말, 나머지 2개 방역대는 6월초 및 6월말에 각각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부는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기색출을 위해 오리농장 등에 대한 상시예찰을 강화,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오리농장의 경우 4월부터 입식 전, 폐사체, 출하 전 검사를 통해 AI 오염 여부를 사전에 색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예찰을 강화, 운영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AI도 재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AI 방역체계 개선대책을 추가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5. 05. 15]



의무자조금 출범 이후 AI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던 오리자조금이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자조금 거출에 나섰다.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호)는 지난 5월 1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5년 제1차 관리위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리자조금은 올해 사육농가는 수당 3원을 비롯해 계열업체 6원, 부화업체 3원을 거출해 총 5억 1천800여만 원을 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정부보조금 4억2천여만 원을 포함해 총 9억4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자조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비홍보사업으로 3억1천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2억원, 조사연구사업 1억 5천만원, 수급안정사업 1억3천여만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아직 자조금 거출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농가 거출금액 5억1천여만 원은 연초부터 도입한 오리까지 소급 적용시켜 편성한 것으로 실제 거출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함께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오리협회 김병은 회장과 배종률 위원을 선출했다. 또

오리자조금 연내 본 궤도 오르나

수납기관 수수료는 5%로 정하고 오리자조금 업무관련 제규정 등을 마련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5. 05. 20]

[인터뷰]

김병은 신임 (사)한국오리협회 회장
소통 통해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 (사)한국오리협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병은 회장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4월 1일,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제24차(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병은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전무를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결의로 제11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한국오리협회는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해 초빙공고를 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김병은씨를 단수후보로 선정, 금번 총회에서 선출절차를 거쳤다.

지속적인 AI 발생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오리산업을 새로이 이끌게

된 한국오리협회 신임 김병은 회장을 만났다.

Q 한국오리협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거치셨는데요.

1975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36년간 줄곧 농림부에서 일해 왔습니다. 유통정책과, 식량정책과 등을 거쳐 총무과장, 인사과장 등을 지내고 감사담당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총무과장 시절 농민단체 담당을 맡아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직접 농민단체장분들과 실무자들을 찾아가 만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의 긴급현안이 있으면 장관께 직접 보고를 하기도 했고, 경영과를 찾아 단체들의 현안을 정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한-미 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농민단체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제주도에서 벌어진 적이 있는데 제주도가 지 날아가 열흘 넘게 농민 단체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전무이사로 3년간 재직하며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Farm to Table로 축산물 HACCP 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Q 회장 취임 즈음해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듣고 싶습니다.

오리협회의 첫 외부인사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선 직접 현장을 다니며 생산농가와 계열업체 등 우리나라 오리산업을 일군 구성원들을 만

나 현안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오리협회는 사육분과, 계열유통분과, 부화분과, 토종오리분과가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 부회장을 맡으신 각 분과 위원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시·도지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AI,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부진 등으로 오리산업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산주체들 간의 소통을 위해 회장인 제가 경청하고 회무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기관, 관련단체와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리산업의 힘을 모아 우리 앞에 놓인 위기들을 하나씩 헤쳐 나갈 것입니다.

회장으로서 권위도 중요하지만,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자들과도 직접 소통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가와 계열사,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오리협회 신임 김병은 회장은 축산관련 현안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오리산업의 최우선 과제인 AI 근절을 위한 선결과제로 일선 농가의 방역 수준 제고와 사육시설 현대화 등이 손꼽히는 상황에서 방역위생수준의 제고와 사육 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이뤄낼 책임자로 손꼽힌다.

김 회장은 “AI 근절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주어진 골든타임을 소중히 활용, 오리산업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끝으로 오리섹션 등을 통해 오리산업을 조명하고 있는 현대양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발간을 앞둔 “오리백과”를 통해 오리산업 발전의 전기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대축산뉴스 류필선 기자 [2015. 05. 19]

